

“녹취록 일부 아닌 전체 공개해야”

조지훈 전주시장 예비후보, 선거브로커 의혹 해소 위해 녹취록 전체 공개 촉구·모든 후보 동참 제안

전주시장 선거에 출마한 조지훈 예비후보가 더불어민주당 경선에 나선 후보들에게 언론에서 보도된 녹취록이 전체 공개될 수 있도록 동참해 줄 것을 촉구했다. 선거브로커 개입 관련 보도 이후 낱설이 확산되면서 시민들의 혼란이 가중, 혼탁선거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13일 조지훈 전주시장 예비후보는 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선거브로커 압박에 좌절한 이종선 예비후보의 사퇴 결정도 충격인데 이를 정치적으로 악용하려는 사실이 더욱 개탄스럽다며 의혹 해소를 위해 일부가 아닌 녹취록 전체가 공개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종선 예비후보가 지난 7일 전주시장 예비후보 사퇴 기자회견에서 선거브로커로 지목한 A씨와 다른 예비후보가 일정 부분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힌 것과 선거브로커 관련 보도에서 공개된 녹취록 일부를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움직임에 따른 우려다. 조 예비후보는 “현재 만나는 시민마다 이종선 후보가 관련이 있다고 언급한 캠프가 어느 곳이나, 모 캠프 연관



13일 조지훈 전주시장 예비후보는 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선거브로커 압박에 좌절한 이종선 예비후보의 사퇴 결정도 충격인데 이를 정치적으로 악용하려는 사실이 더욱 개탄스럽다며 의혹 해소를 위해 일부가 아닌 녹취록 전체가 공개돼야 한다고 밝혔다.

실이 녹취록에 등장하는데 사실이냐 등의 질문을 쏟아내고 있다”며 이 같은 분위기에 당혹스럽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특히, 선거브로커 개입으로 인한 모

후보의 더불어민주당 공천 컷오프라는 ‘카더라 통신’을 빗자한 악질적인 소문까지 돌고 있어 혼탁선거가 조장되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각종 의혹을 확실히 해소하고자 이

사건을 보도한 언론사에 녹취록 일부가 아닌 전체 공개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 전주시장 경선에 참여한 모든 후보도 녹취록이 전체 공개될 수 있도록 동참,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약속해 줄 것을 공개 제안했다. 이를 통해 정치적 이익을 노린 가짜 뉴스 생산을 막고, 다시는 선거브로커가 발붙일 수 없는 풍토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지훈 전주시장 예비후보는 “선거브로커 관련 낱설이 도를 넘는 수준으로, 이는 시민 혼란을 가중시키고 모든 캠프가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며 “모든 의혹 해소를 위해 녹취록 전체가 공개될 수 있도록 모든 후보가 함께할 것을 한 번 더 요청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서 이번 선거브로커 개입 의혹과 관련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안다”며 “시민의 혼란을 막고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는 타 시·군에서 전입하는 시민들이 전주에 대한 정보부족으로 불편을 겪지 않도록 동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를 할 때 '전주살이 행복수첩'을 배부한다.

새내기 시민 도울 '전주살이 행복수첩'

시, 타시·군서 전입하는 시민 대상 동 주민센터서 배부

타 지역에서 이사를 온 새내기 전주 시민들에게 슬기로운 전주생활을 돕는 수첩이 제공된다.

전주시는 타 시·군에서 전입하는 시민들이 전주에 대한 정보부족으로 불편을 겪지 않도록 동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를 할 때 '전주살이 행복수첩'을 배부한다고 13일 밝혔다.

'전주살이 행복수첩'에는 전주시 일반현황, 생활정보 및 행정서비스, 주요 축제·행사·시설 등 실생활에 밀접한 정보가 알기 쉽게 담겨있다.

세부적으로 전주소개란에는 △전주 지명의 의미 △전주의 상징 △통계로 보는 전주 현황 등이 소개돼 있다.

또한 슬기로운 전주생활을 돕기 위해 △이사 후에 확인하세요 △인터넷 민원 안내 △생활폐기물 배출 △전통시장&전주푸드 정보기 △전주사랑상품권 △공공배달앱 △전주맛배달 △탄소포인트제 가입 안내 △일자리 정보 △도서관 소개(도서관 여행 및 책공20) △다자녀가정 혜택 △주거복지센터 안내 등도 담겨 있다. /김윤상 기자

이외에도 전주살이 행복수첩에는 각종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전주시 온라인 채널 △주요 축제 및 행사 △문화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 정보 등도 총망라했다.

시는 '전주살이 행복수첩'을 35개 동 주민센터에 비치하고 전입 주민과 수첩을 필요로 하는 주민에게 나눠줄 계획이다. 온라인을 통해 전입신고를 한 경우에도 통장을 통해 전입신고 사후 확인 시 수첩을 전달받을 수 있다.

시는 이 수첩이 전주에서의 생활이 아늑한 새내기 시민들에게 생활 길잡이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주시 기획조정국 관계자는 “낯선 환경에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는 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수록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앞으로도 전주시에 전입하는 분들을 위해 필요한 일들을 찾아내어 전주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갖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 재난지원금' 온라인 신청 접수 시작

24일까지 전주시사랑상품권 앱 통해 신청... 오프라인 방문신청은 26일부터 접수

66만 전주 시민 모두를 대상으로 한 전주시 재난지원금 지급 업무가 시작됐다.

전주시는 13일 오전 10시부터 스마트폰 전주시사랑상품권(복지카드) 앱을 통해 전주시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온라인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전주시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은 지난달 29일 24시 기준으로 전주시에 주민등록 또는 체류지를 등록한 △전주시 주민등록자 △결혼이민자(F6비자) △영주자격자(F5비자) 등이다. 이 조

건만 갖추면 나이와 직업, 소득 등에 상관없이 1인당 10만 원씩의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

이달 24일까지 진행되는 온라인 신청은 스마트폰 전주시사랑상품권 앱에서 휴대전화 본인인증 절차를 거친 뒤 세대주 일괄신청 또는 세대원 개별신청을 선택해 하면 된다.

재난지원금은 신청일 하루 뒤 전주시사랑상품권 카드에 충전돼 곧바로 이용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기간 중 전주시사랑상품권

신규 가입자도 신청할 수 있다. 전주시사랑상품권 앱을 설치하고 회원가입을 한 후 재난지원금을 신청하면 신청 후 3일 이내 우편으로 카드를 배송받아 사용할 수 있다.

시는 온라인 신청에 이어 이달 26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신분증 등을 지참해 세대주 일괄신청 또는 세대원 개별신청을 선택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난지

원은 무기명 선불카드로 받게 된다. 시는 오프라인 신청 초기 예상되는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청기간 첫 주에는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5부제를 적용하기로 했으며, 다음 달 3일부터는 출생년도와 요일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지급된 재난지원금은 오는 8월 31까지 전주시 전주시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대형마트와 백화점, 온라인 쇼핑몰, 유류업종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전주시 관계자는 “온라인 신청 접수 종료 후 오프라인 방문접수도 가능하지만, 코로나19의 확산방지 등을 위해 가급적 전주시사랑상품권 앱을 통한 온라인 신청에 적극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청 태권도부, 한국실업태권도연맹회장기대회서 우수한 성적 거둬

금메달 1개 · 동메달 1개 · 단체전 2위

전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태권도 선수단이 지난 8~10일 강원도 철원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제16회 한국실업태권도연맹회장기 전국태권도대회에서 개인전 금메달 1개와 동메달 1개, 단체전 2위의 성적을 거뒀다.

특히 이번 대회에서 -87kg급 개인전에 출전한 이상재 선수는 금메달을 획득하며 대회 최다 득점으로 우수선수상을 획득하는 영예를 안았다. -80kg급 개인전에 출전한 민정준 선수는 동메달을 따냈다. /김윤상 기자

이와 함께 전주시 태권도부는 남자 일반부 단체전에서 2위를 차지하는 기쁨을 토하며 우수한 단결력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김성수 전주시 체육산업과장은 “지난해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대회 출전이 원활하지 못했지만, 올해부터는 태권도 국가대표 지도자를 맡고 있는 맹성재 감독의 지도 아래 전주시청 태권도부의 명성과 저력을 유감없이 발휘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정당 자율 법원 판시 존중, 거취는 시민 뜻 따를 것”

임정엽 전주시장 출마예정자

임정엽 전주시장 출마예정자는 정당의 자율성을 인정한 법원의 판시를 존중한다고 밝히고 향후 거취는 전주시민의 뜻에 따라 결정하겠다고 13일 밝혔다.



임 출마예정자는 “정당의 공천후보자 결정은 기본적으로 정당이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할 사임을 고려해 내린 법원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어렵고 안타깝지만 앞으로의 방향은 전주시민들의 뜻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거취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그는 “민주개혁 승리를 위한 중앙당의 부당 결정 발표 이후 1월부터 지금까지 진행된 5차례의 여론조사에서 연속 1위를 고수하고 있는 것은 전주의 대변화를 원하는 시민들의 강렬한 욕구의 표현”이라고 진단하고 “그동안 수렴해온 시민 의견과 여론조사 등을 자세히 살펴 향후 진로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임정엽 예정자는 “전북도당의 지방선거 공천과정에서 이런 세력의 인사권, 사업권 요구, 거역의 자금 수수설이 난무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시민과 당원의 뜻을 존중하는 정당 공천이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민주당 이름을 빌린 이런 카르텔 세력에 대해 재차 경고했다. /김윤상 기자

백만천사 기부단체 15곳에 나눔현판 전달

전주시복지재단 '전주사랑'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1년 동안 100만 원 이상 기부한 15곳의 기부단체에 나눔현판이 걸린다.

전주시복지재단 '전주사랑' (이사장 이병관)은 지난 1년 동안 어려운 이웃을 위해 100만 원 이상을 기부하며 나눔을 실천한 백만천사 기부단체 15곳에 나눔현판을 전달했다고 13일 밝혔다.

나눔현판이 전달된 15개 단체는 △한빛어린이집 △오!동태마을 아동복지센터 △와이식자재마트 모악로점 △센트럴키즈어린이집 △석주 △완산구 아이돌세상어린이집 △아중어린이집 △재능나눔어린이집 △'o' 나눔 아동리움 공동체 △서신신협 △법무법인 백제 △이승수국어논술학원 △매데이린이집 △서신어린이집 △휴먼시아해

오름어린이집 등이다. '전주사랑'은 '단 한사람도 소외됨 없는 전주'를 만들기 위해 함께해준 기부자에게 감사와 예우의 마음을 전하고, 시민 누구나 동참의 기쁨을 알리기 위해 나눔현판을 전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병관 전주시복지재단 '전주사랑' 이사장은 “혼자서는 어렵지만 전주시민여러분의 힘이 함께 할 때 행복한 전주시를 만들 수 있다”면서 “어려운 시기에도 나눔을 함께해주시는 15개 단체에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시복지재단 '전주사랑'은 복지사각지대 지원을 위한 민간재원 확보에 기여하고자 다양한 모금활동을 펼치고 있다. 기부 문의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화(063-281-0030)로 문의하면 된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복지재단 '전주사랑'은 지난 1년 동안 어려운 이웃을 위해 100만 원 이상을 기부하며 나눔을 실천한 백만천사 기부단체 15곳에 나눔현판을 전달했다.

전주시립도서관 꽃심 옥상정원, 텃밭으로 제공

초등학생 자녀 가족 대상 'BOOK적 BOOK적 텃밭 가꾸기' 운영

전주시립도서관 꽃심 옥상정원이 초등학생들이 작물을 키우는 텃밭으로 제공된다.

전주시는 오는 10월 15일까지 꽃심 옥상정원에서 초등학생 자녀를 둔 7가족을 대상으로 'BOOK적 BOOK적 텃밭 가꾸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도시농업 연구회가 함께 운영하는 'BOOK적 BOOK적 텃밭 가꾸기' 프로그램은 다양한 텃밭 가꾸기 활동을 통해 아이들이 건강한 먹거리에 관심을 갖게 하고 농업에 대한 인식을 친숙하게 만들기 위한 목표로 총 8회 실시된다. 참여 학생들은 가족과 함께 △텃밭

용 밑포자 만들기 △씨앗가, 썬소심기 △농약 만들기 △허브 비누 만들기 △고구마 줄기 심기 △팜파티 등을 주제로 다양한 텃밭 관련 활동을 하게 된다. 자세한 일정은 전주시립도서관 누리집(lib.jonju.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전주시 책의도시인문교육본부 관계자는 “도서관에서 책만 읽는 것이 아니라 가족과 함께 주말을 함께 보내며 농업을 체험하는 장으로 만들 것”이라며 “시민들이 다채로운 경험을 즐기고 가족 간의 유대감을 쌓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발굴해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